

## SBS\_ 2018년 개인 2049 시청률 1위!

보도-교양-드라마-예능-스포츠 모든 장르, 모든 프로그램 골고루 선전



### 개인 2049/개인시청률/평창 동계올림픽 시청률 3관왕

2018년의 미디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했다. KBS와 MBC는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궤도 정상화에 몰두했고, tvN과 JTBC는 전방위적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5개 채널 시대를 정착시켰다. 또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가입자 기반의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이렇듯 숨가쁜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SBS는 경쟁사들의 도전을 기쁘게 물리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49 시청률 1위를 지켜냈다. 그뿐만 아니라 3세 이상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시청률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큰 차이로 1위를 차지, 시청률 3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SBS의 2049 시청률 1위 달성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느 한 장르만 아니라 모든 장르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제 몫을 다해주었기 때문이다.

### <SBS 8뉴스> 동시간대 뉴스 중 압도적 1위

보도 부문에서는 <SBS 8뉴스>가 5개 채널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는 저녁 8시대에 2049 시청률 2.22%로, 5개 채널 중 유일하게 2%를 넘기면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시청자 수도 68만 명으로 2위인 JTBC <뉴스룸>을 크게 앞섰다.

프로그램	2049 시청률	전체시청자수
SBS 8뉴스	2.22%	68만 명
JTBC 뉴스룸	1.94%	57만 명
MBC 뉴스데스크	1.28%	40만 명
MBN 뉴스8	0.55%	25만 명
뉴스A	0.34%	16만 명

### SBS 모든 교양 프로그램 TOP 10 안에 포진

교양 부문은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생활의 달인>, <TV동물농장>,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영재발굴단>을 포함한 SBS 프로그램들이 전부 Top 10 내에 포진했다.

순위	채널	프로그램	2049 시청률
1		궁금한이야기Y	3.67%
2		그것이 알고싶다	3.30%
3		생활의달인	2.93%
4	SBS	TV동물농장	2.79%
5		순간포착	2.78%
6		영재발굴단	2.24%
7		맨인블랙박스	2.02%
8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94%
9	MBC	공복자들	1.86%
10		뜻밖의Q	1.76%

### 미니시리즈 1위 <리턴>부터 <황후의 품격>까지

드라마는 tvN과 JTBC가 강력한 스타 캐스팅을 내세워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리턴>이 2018년 미니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와 <키스 먼저 할까요>, <여우각시별> 등 SBS만의 따뜻하고 현실에 있을 법한 멜로물들이 호평을 얻으며 화제를 뿌렸다. 한편, 현재 방송 중인 <황후의 품격>은 연말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SBS 드라마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다.

### SBS 예능의 전성기 올해도 이어져

예능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미운 우리 새끼>가 작년에 이어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선두를 달렸고, <집사부일체>와 새롭게 토요일 오후를 책임진 <더 팬>이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과 <불타는 청춘>, 그리고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 역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신선한 웃음을 선사해주고 있다. 또 무엇보다 프로그램 내에서 쉽지 않은 큰 변화에 도전, 멋지게 성공시키며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칭찬을 아낄 수 없다.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려운 경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200% 자기 몫을 다해낸 덕분에 SBS는 2018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뷰  
이 사람

"제대로 알아야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최원석 보도국장

올해 보도국의 성과가 눈부시다. 수상 실적도 역대급이고, 2049 시청률도 동시간대 뉴스 중 1위다.

SBS 뉴스는 여전히 긴 여정의 중간에 있다. 최고의 뉴스를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아직 거리가 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기에 아직 부끄러움이 크다. 이제 겨우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할까? 그 정도 단계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예상은 SBS 보도국 기자 개개인의 역량이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보도국장 2년 차다. 기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거나 주문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팀장, 에디터, 국장, 본부장. 그 누구도 맞지 않다. 오로지 현장에 있는 기자가 맞다.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여 기사 하나하나에 기자 개개인의 시각과 철학이 살아야 한다. 그게 1등 뉴스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확하게 취재하고 남들과 다르게 기사를 쓰고 독창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남들과 다를 게 없는 시각, 뻘한 스토리, 똑같은 전달방식은 안 된다.

단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12월 3일자로 보도국 조직에 변화가 있었다. 부서 축소, 에디터제 신설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조직 개편은 뉴스 혁신, 즉 좋은 뉴스 만들기 위한 인프라의 손질이라고 본다.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관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인력 배치가 주된 목적이다.

정치, 경제, 사회 대부(大部)로 재편됐고 탐사보도부가 생겨났다. SBS 보도국에서 못 보던 에디터가 등장했다. 에디터는 조망하는 사람이다. 뉴스를 폭넓게 보는 사람이다. 자기 분야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 부여됐다. 우리 뉴스가 가는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이다.

조직 개편을 했지만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에디터와 팀장, 팀장과 현장기자의 소통이 중요하다. 남들이 그냥 흘려버린 것에서 기사를 찾아내고 이슈를 만드는 일,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이다.

우리 뉴스가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SBS 뉴스는 공정해야 한다.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소수의 목소리도 대변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SBS 뉴스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보도국 구성원이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은 본질에 접근하려는 치열함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알아야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 우리의 기사가 공정했고 정의로웠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돌아보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법대를 나와 1992년 공채 2기로 입사했다. 2007년부터 3년간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고 정책사회부장과 정치부장을 지냈다. 공익을 추구하는 일에 만족한다. 동기 PD 소개로 만난 여자와 5개월 만에 결혼해 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있다.



2019년 보도국의 목표는?

당연히 언론사로서 SBS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뉴스를 만드는 것은 맛있는 집밥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손님에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은 특별한 메뉴, 특종이 있지만 그런 날이 많지는 않다. 매일 차리는 밥상이 맛있고 영양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주는 일은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지지 않는다. 민영방송은 흔들리기 쉽다는 선입관도 여전하다. 이런 편견을 깨는 방법은 확고하다.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하루하루 정성껏 최선을 다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다.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된 것이고, 또 후임자가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SBS라는 밥집에 손님들이 줄서는 날이 올 것이다. 지상파의 위기라고 하지만 뉴스가 앞장서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도본부 밖에 계신 분들도 열렬히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SBS 가요대전> 12월 25일, <SBS 연예대상> 28일, <SBS 연기대상> 31일 연말은 SBS와 함께! 역량 총결집한 한 해 결산 무대 준비 중



한 해를 결산하는 <SBS 가요대전>, <SBS 연예대상>, <SBS 연기대상>이 각각 날짜와 장소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무대를 자랑하는 <2018 SBS 가요대전>이 12월 25일(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전현무, 조보아의 진행으로 오후 5시 35분부터 생방송된다. <2018 SBS 가요대전>은 'THE WAVE'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가며 전성기를 맞은 가수들과 함께 K-POP과 한류의 흐름을 짚어본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트와이스, 블랙핑크, iKON, 마마무, 모모랜드, 여자친구, GOT7, EXO, 워너원, 레드벨벳, 워너, 에이핑크, 선미, 몬스타엑스, NCT, 세븐틴, 비투비 등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18팀이 총출동한다는 소식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2018 SBS 가요대전>에서 송민호의 솔로곡이 최초로 공개되며, 스페셜 무대로 갓세븐×워너×세븐틴×NCT×워너원이 한 무대에 서는 모습과, 레드벨벳×트와이스가 콜라보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출을 맡은 임형택 PD는 "전 세계를 한류의 웨이브로 휩쓸 K-POP계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역대급 무대를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2018 SBS 연예대상>은 12월 28일(금) 밤 8시 55분부터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올 한 해에도 SBS 예능의 활약은 눈부셨다. 현존 최고의 예능 <미운 우리 새끼>를 비롯해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 <불타는 청춘>, <백종원의 골목식당>, <정글의 법칙>이 평일 밤을 평정했고, <집사부일체>, <런닝맨>, 또 얼마 전 시작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킨 <더 팬>이 주말과 휴일을 장악했다. <2018 SBS 연예대상>의 연출을 맡은 심성민 PD는 "모든 예능이 다 잘 되어서 올해 연예대상은 역대 가장 화려하고 훈훈한 시상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일) 밤 8시 55분부터는 <2018 SBS 연기대상>(연출: 민익식)이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신동엽과 신혜선, 이제훈의 사회로 진행된다. 올해 SBS는 <리턴>을 비롯해서 <키스 먼저 할까요?>,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여우각시별>, <홍부외과>, 또 최근 끊을 수 없는 '맛'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날로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황후의 품격>에 이르기까지 화제작이 풍성하다.

대상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증을 주는 가운데,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 출연한 안효섭 등 조정 3인방의 축하무대가 준비돼 있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함께한다.



## 태평양의 보석 <정글의 법칙 in 북마리아나> 12월 21일 첫 방송

### 5년만의 예능 출연! 마린보이 박태환의 정글 생존기



병만족의 40번째 생존 <정글의 법칙 in 북마리아나>가 오는 12월 21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이번 병만족의 생존 무대가 되는 '북마리아나 제도'는 태평양의 1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이판, 티니안, 로타 3개의 섬이 있다. 코발트 빛 바다와 울창한 열대우림, 눈부신 백사장, 깎아지른 절벽으로 환상적인 절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세계 2차 대전의 격전지로 아직까지 그 잔해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글의 법칙 in 북마리아나> 전반전에서는 최근 있었던 태풍 '위투'의 영향으로 황량해진 북마리아나 제도의 한 섬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희망 생존'이 펼쳐진다.

전반전의 관전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정글 합류다.

그동안 예능 출연을 망설였던 박태환 선수가 <정글의 법칙>의 꾸준한 러브콜과 제작진의 정성어린 영상 편지에 감동받아 5년 만의 예능 출연을 결정한 것이다. 함께하는 전반전 멤버들 역시 박태환 선수의 깜짝 등장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 72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며 국민영웅에 등극한 후 가장 최근인 2018 전국체전에서 5관왕 2연패를 달성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박태환 선수. 그는 정글에서도 역시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입증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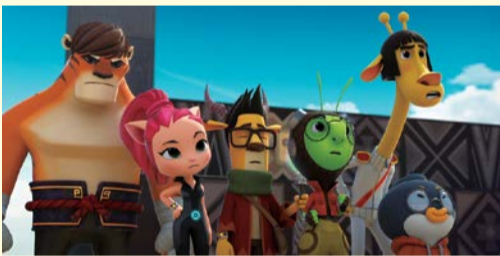
깊은 바다 속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맨손으로 물고기를 사냥하는가하면, 바다 거북이와 흥미진진한 수영 대결을 펼치는 등 명실상부한 마린보이의 명성을 이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숨겨왔던 입담과 예능감을 뽐내며, 모든 일에 몸을 사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병만 족장은 물론 스태프까지 모두 감탄케 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국민 아빠 이종혁, 믿고 보는 프로 정글러 오종혁, 예능 대세 양세찬, 원조 열쌍이자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이주연, 우주소녀의 대표 비주얼 보나, 2018 유망주로 떠오른 신인 아이돌 더보이즈 주연이 함께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희망 생존에 나선다.

이어지는 후반전에서는 중식요리의 대가 이연복 셰프를 중심으로 자칭 40년 경력의 낚시꾼 지상렬, 자타공인 연예계 낚시 1인자 이태근이 합류하여 역대급 정글 요리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들 외에도 제주 많은 여배우 한보름, SBS 미남 아나운서 김윤상, 갯세븐의 메인댄서 유겸과 신인 걸그룹 네이처 루가 3500년에 걸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로타 섬에서 생존에 나선다.

<정글의 법칙>을 가장 오랫동안 이끌어온 김진호 PD의 연출작인 이번 <정글의 법칙 in 북마리아나> 편에서는 태평양의 푸른 낙원 북마리아나 제도의 환상적인 자연환경은 물론, 병만족의 색다른 생존을 선보일 예정이다.

## <애니메이션 런닝맨> 극장판 첫 스크린 질주 성공적! 2019년 새로운 시즌 흥행 예고



SBS TV 애니메이션을 스크린으로 옮긴 <런닝맨: 폴룰루의 역습>이 지난 12월 5일(수) 개봉 후 2주간 18만 관객을 돌파하며 새로운 시즌의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다. 특히 런닝맨들을 강제로 '런닝맨 서바이벌'에 출전시켜 위기에 빠뜨리는 '폴룰루'족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철의 야수 등 기존 TV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들이 궁금증과 긴장감을 더하며 극장을 방문한 어린이 팬들을 사로잡았다.

TV에서도 스크린의 흥행을 바로 이어간다. 오는 1월 1일(화) 시즌 1과 시즌 2를 이어줄 스페셜 화가 방영되며, 1월 5일(토) 10시 40분에는 시즌 2가 본격적으로 첫 방송된다. 또한 이에 발맞춰 2019년에는 캐릭터 완구 출시와 어린이 뮤지컬 개막도 앞두고 있어, 보다 다채롭게 어린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SBS-절강위성, 새로운 협력 모색한다 절강위성, <달려라 형제>로 중국 내 1위 방송사 부상



박정훈 SBS 사장 | 위쨈엔추 절강미디어그룹 총재

박정훈 SBS 사장과 미디어비즈니스센터 글로벌제작사업팀, SBS콘텐츠허브 콘텐츠사업실 관계자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중국 항주에 있는 절강위성 사옥을 방문했다. SBS와 절강위성 방송사는 양사가 2014년부터 시작한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 공동제작이 정식 종료되면서 새로운 공동제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SBS의 장기적인 파트너인 절강위성사 임원진은 물론, 절강성 전체 미디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절강광파전시그룹(절강미디어그룹)'의 총수이자 절강성 당서기인 위쨈엔추(吕建楚) 총재도 미팅에 참석하여 SBS 관계자를 환영했다.

위쨈엔추 총재는 "양사의 우호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역사적인 프로그램 <달려라 형제>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방송사업자 간의 활발한 교류가 향후 양국의 교류로 발전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절강미

디어그룹 관계자는 "〈달려라 형제〉는 시청률,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절강위성 및 중국 전체 예능 시장에서 기적을 만들어준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SBS와 새로운 협력으로 <달려라 형제>에 이어 두 번째 기적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사는 한-중 양국의 관계가 회복될 때를 대비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박정훈 SBS 사장은 "〈런닝맨〉 공동제작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는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줄 견인차로, 향후 SBS의 IP를 활용한 공동제작뿐만 아니라 신규 공동기획 개발, 그리고 예능에서 드라마, 영화까지 장르를 확대하여 더욱 활발하고 다각화된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절강위성은 중국 내 4위 방송사였으나 <달려라 형제> 방송으로 1위 방송사로 올라선 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 1973년 이후 증산된 지상파 중간광고 재허용

- 정책팀 박석철 차장대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지상파방송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1973년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금지된 중간광고를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의 광고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하여 지상파방송이 공적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중간광고 가부 여부는 방송사업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광고 회피가 일반화된 시청 패턴에서 광고주는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길 원하는데 프로그램 전후 광고만으로는 광고집행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중간광고가 불가능한 채널에 광고집행을 꺼리게 된다.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유료방송 채널(중편, CJ ENM)과 비교할 때 중간광고가 불가능한 지상파 채널의 경쟁 열위(劣位)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실제로 종합편성채널과 다채널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증가는 중앙 지상파 방송 3사의 매출액 감소와 맞물려 있다. 지금이라도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매체 간 균형발전으로 포장된 유료방송 편향 정책은 방송 산업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육성하고자 했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아직도 실체가 불분명하며,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도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모적인 유료방송 가입자 쟁탈전이나 플랫폼 기업 간 M&A 확산이라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공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기업 자본이 협소한 방송시장에 침투해 야기한 폐해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송광고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기업 MPP는 제작인

력 양성보다는 지상파방송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제작자 스카우트에만 공들이고 있고, 방송작가가 소속된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 제작요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제작비 수급 명목으로 글로벌 OTT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효경쟁이 불가능한 방송시장을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왜곡된 방송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쟁 제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는 단호하게 시정해야 한다. 또한 규제가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호령'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중소사업자의 재정적 지원 책임을 부과했던 정책 기초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결합판매 의무 부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 부과 등 공적 책무를 현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방송 산업에서도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 이재익 PD, <SBS 정치쇼> 새 DJ



SBS 러브FM(103.5Mhz) <SBS 정치쇼>를 임시로 진행하던 이재익 PD(라디오1CP 소속)가 고정 진행자로 전격 발탁되었다. <SBS 정치쇼>는 진행자 김용민이 지난달 말 마이크를 놓은 뒤 시사평론가, 기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진행자를 물색해왔다. <SBS 정치쇼> 연출자 정한성 PD는 "이재익 PD의 남다른 입담과 센스에 정식 DJ 자리를 맡기라는 청취자들의 문자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이재익 PD는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왔으며 현재 <시사전망대>의 연출을 맡고 있다. 또 1997년 '질주 질주 질주'로 문학사상 장편소설문학상을 수상했고, 영화 '목포는 항구다', '원더풀 라디오'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는 등 다재다능한 스타 PD이기도 하다.

새롭게 출발하는 <SBS 정치쇼>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5분, 토요일은 11시에 방송된다.

## <SBS 일요특선다큐> '글로벌 신약전쟁' 한국방송비평상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천연물에 주목하라 - 글로벌 신약전쟁'(연출: 서유정)이 12월 17일(월) 서울 뉴극제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방송비평상'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상을 받았다. 한국방송비평학회는 "천연물에 주목하라 - 글로벌 신약전쟁'이 천연물 신약 개발의 중요성과 국내외 개발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의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연구 현황과 국민의 인식을 선보임으로써 우리나라도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라디오계의 황소개구리, 조정식입니다"

새벽 다섯 시를 대낮보다 더 뜨겁게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라디오의 생태계 교란자. 바로 DJ 조정식입니다.

##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조정식의 편편투데이>

파워FM(수도권 107.7MHz) 월~일 오전 05:00-07:00

현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감성 DJ의 조건을 두루 갖춘 진행자이지만 문자 창에 올라오는 반응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아나운서가 아니라 개그맨 아니야?"

맞습니다. 개그맨을 긴장시키는 아나운서가 여기 있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인 줄 알았다는 박지선 씨나 개그맨보다 더 세계 진행한다고 애정 어린 타박을 하는 DJ 김영철 씨의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루를 즐겁게 만들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 <편편투데이>. 그 이름값을 견디기 위해 조정식 아나운서는 오늘도 밤새 성대모사를 연습합니다.

기면증 환자도 잠을 깨게 만드는 새벽 라이브 '제이 식스', 뇌로 하는 스트레칭 '반반 퀴즈', 돈에 관한 모든 컨설팅 '조머니의 째랑째랑' 등 괴로운 출근길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의 편편투데이>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청취자입니다. 평범한 구성조차 레전드 화차로 만들어버리는 청취자들의 센스야말로 <편편 투데이>의 커다란 힘입니다. 출장을 떠난 조정식 DJ가 종종 청취자의 입장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막강한 청취자들의 위트에 밀려 실패하곤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청취자들이 꾸미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라디오 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훌륭한 청취자들 덕분에 동시간대 1위, 새벽 시간대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높은 수치의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때일 것입니다. 힘든 하루의 시작을 웃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조정식의 편편투데이>가 되겠습니다.

- 유용준 PD(라디오2CP 소속)

우리 프로그램은요~

